

# 도내 전문건설인 모여 화합과 결속 다져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기총회 열려... 윤학수 중앙회장 등 주요 인사 참석, 상생·협력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라한호텔에서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41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윤학수 중앙회장 등 건설업계 주요 인사와 회원사 관계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의 상생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문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 협력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전북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든든한 힘"이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에 따라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41회 정기총회가 19일 라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윤학수 중앙회장,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인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전북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든든한 힘"이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에 따라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도, 설명절 식품안전 비상체제 가동

### 소비기한 경과원료 사용·판매 여부·작업장 위생관리 점검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5일간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과 양갱 떡 수산물 등 명절 다소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70개소 △즉석판매·식품집객업 등 제사음식 조리·판매업소 100개소 △대형 유통업체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4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18개소 등 총 228곳이다.

점검은 도와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추진하며, 총 8개 반 24명(도 2명, 시·군 1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을 투입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있거나 점검 실적이 없는 업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판매 여

부 △작업장 위생관리 상태 △원료 수불 및 생산 관련 서류 △자제품질검사 기록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 조리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총 50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한과 떡, 수산물 등 명절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보존료, 세균수, 중금속, 타르색소 등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상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 건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김제시의회, 2026년 첫 의원간담회 개최

### AI·드론 등 미래산업 육성 방안 집중 논의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는 19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첫 의원간담회를 열고 AI 로봇·드론 등 미래산업과 생활 SOC 구축을 이루려는 주요 현안 14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영위원회(위원장 전순관)가 제안한 제25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

루어졌으며, 성장전략실과 도시과 등 각 부서에서 제출한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과 지역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들이 다각도로 검토됐다.

또한 지역 주력 산업인 특장차 분야의 고도화를 위해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등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김제=곽노태기자

# 군산시의회, 청렴·소통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국외출장 심사 강화·상임위 유튜브 생중계 도입... 의정 구현 박차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가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의회 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한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 마련과 상임위원회 회의 유튜브 생중계 도입

등 다각적인 의정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군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을 통해 연수 목적과 계획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전·사후 심사 과정을 한층 더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국외출장 후 결과 보고서의 내실을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형식적인 연수에서 벗어나 시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는 정책 중심의 연수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는 의회 청렴도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는 그동안 본회의에만 적용했던 유튜브 생중계를 모든 상임위원회로 확대한다.

조례안 심사, 예산안 조정 등 시의회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에게 더욱 가까

이 다가가 소통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환경을 만들겠다는 군산시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다.

나종대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며,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리는 제2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군산=김만호기자

# 전북TP, 선도·혁신기업 지원사업 추진

### 도내 유망 중소기업 대상 통합 모집... 19일부터 접수

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선도·혁신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통합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핵심 축인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기술개발(R&D) 지원사업 △자율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운영예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기업과 혁신기업에 기업당 1억5천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 오후 5시까지다.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자율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마케팅, 컨설팅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항목을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규모는 선도기업의 경우 기업당 9천만 원 내외, 혁신기업은 1억 원 내외이며, 접수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누리집(ji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오상근 기자

# 전북자치도, 겨울철 한파대비 경로당 현장 방문 실시

### 김제 경로당 2곳 방문해 난방·안전시설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김제시 구봉경로당과 구성경로당 등 2개 경로당을 방문하고, 난방시설과 어르신 이용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기온 급강하

에 따른 한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부지사는 경로당 난방기 작동 상태를 비롯해 보일러 및 전기시설의 안전 여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실태도 함께 살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개선하는 한편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만호기자

정읍시공고 제2026-125호

##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정읍 국립습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정읍 국립습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유안에 행인되는 부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1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도시이용계획 기본법 제30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주민)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장  
나.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승정로 254 정읍시장 권역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명: 정읍 국립습채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나. 위 치: 정읍시 북면 북촌리 산 2261 일원  
다. 사업예정기간: 2026.3. ~ 2027.6.
3. 사업내용: 도로개설 L=1,726m, B=8.0m
4. 농어촌도로의 노선 지정(안)

읍면	도로명	노선번호	노선번호	노선구간	총연장 (km)	주요경계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북면	번도	탄양선	상면	북촌리	북촌리	1.72	노선내비 보양내비	6.0	노선 안의

5.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일 계속기간: 2026.1.19. ~ 2.2.(15일간)  
나. 열람일 계속장소: 정읍시장 건설과 건설행정팀 ☎063-539-5824  
다. 열람내용: 권역토지주식(열람장소 비치)
6.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환경평가 심사 결과 개편 통지

2026년 1월 19일 정읍시장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